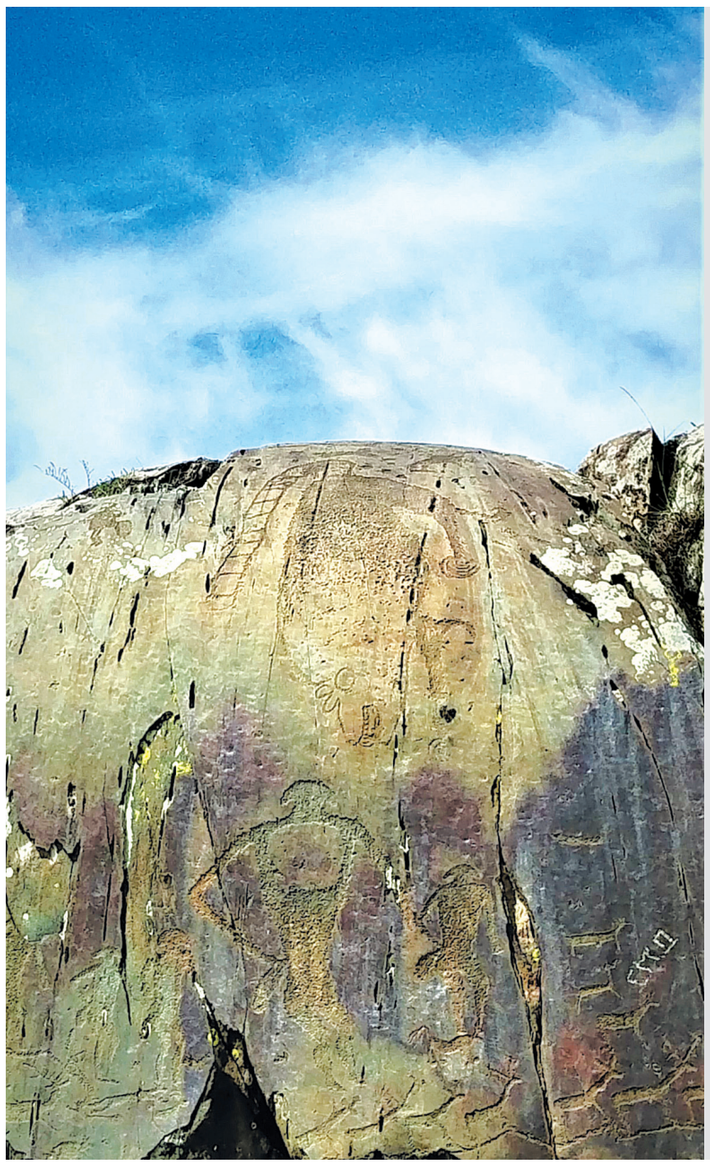


일감 스님의
암각화 기행

영웅의 전설



스스로 영웅이 있었다.
우리의 시작이 되어 주었다.

우리의 밥이 되어주고
바람막이가 되어 주었다

우리의 눈물이고
사랑이 되어 주었다

우리의 방향이고
돌아갈 집이 되어 주었다

밤하늘의 별이 되고
전설이 되어 주었다

알타이, 깔박다쉬

러시아, 알타이 공화국 깔박다쉬 유적의 중앙 제단(祭壇)에 있다. 제단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곳에서 제기(祭器)로 쓰였을 법한 그릇들과 유물들이 몇 점 출토되었기 때문이다. 제단의 주인공은 전사(戰士)들이다. 신을 섬기는 제단에 남자들이 복수로 모셔져 있는 것은 매우 독특하다. 이들을 뭐라 불러야 할지 모르니, 적당히 전사(戰士)라고 불러야 할 것 같다. 무기를 손에 들지는 않았지만, 모자의 모양이나 우람한 체격으로 봤을 때, 전사(戰士)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평소에는 사냥꾼이고, 부족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할 때는, 전사라 불렸을 것이다.

그런데, 제단에 신을 모시지 않고 전사(戰士)를 모신 이유는 뭘까? 전사들이 신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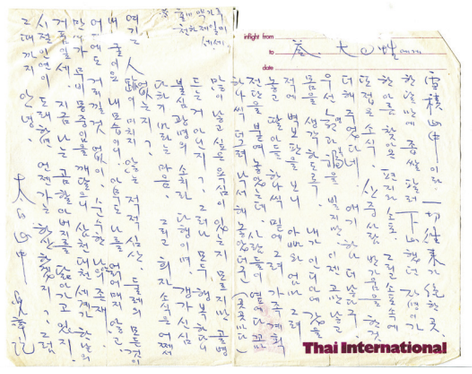
영웅(英雄)은 영웅담(英雄譚)이 있어야 한다. 이 암각화에도 영웅담이 있다. 전사들의 머리 위에 전사들을 곧, 덮칠 것 같은 맹수가 영웅담이다. 만약 이 맹수가 없었다면, 전사들의 위대함을 누가 알겠는가! 중앙은 크게 새기고, 주변은 작게 새겨서, 강약과 경중을 조절한, 그림 솜씨도 빼어나지만, 장수들에게 어울리는 맹수를 등장시켜, 그림의 긴장감과 완성도를 높인, 연출력도 돋보인다.

인생을 살다보면, 가끔 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다. 그럴 때, 좌절하고 물러서지 말고, 지혜롭고 바르게 맞서서 싸우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어서, 후손들의 "길이 되고, 빛이 되어라"는 선조들의 가르침으로, 이 암각화를 읽는다.



대원성보살의
선지식 '산중서신'
⑥ 일타 스님 2

"모두 행복하다니 불심광명 다행이네"



일타 스님 서신.

설적산중(雪積山中)이라 일체왕래(一切往來)가 절(絶)한 곳. 한 달 만에 좁쌀 팔러 下山했던 자명이가 한 아름 찾아 온 편지와 소포, 그리고 소포 속에 또 접은 소식, 산중 사람 반가움을 한껏 더해 주었다네. 애기 하나 더 낳았다고? 우선 명과 복을 빌지만 이젠 고만 낳고 몸을 생각하도록. 내가 인디아에 갔을 적에 벽보판을 보니 아빠와 엄마 그려놓고 딸 아들 하나씩 밑에 그려 가족계획 전단을 붙여 놓았는데 사람들이 옆에다 꼬마 하나씩 더 그려 낙서 해 놓았더군. 곳곳마다 많이 낳고 싶은 욕심이 있는지 모르지만 골병드는 거 아닌지? 그러나 모두 행복하다니 불심광명의 소치라 다행이며 갱가신심 다하기 바라는 마음. 희자 소식은 어째서 없는지? 여기는 人跡(인적)이 미치지 않는 적적 심산. 둘레의 모든 것이 내 얼굴이요 내 모습이니 아무도 나를 얽매이지 않고 그 어떤 것도 거리낄 것 없이 순수한 나의 존재. 만사가 무비몽중임을 깨달으니 삼천대천세계가 한 낫 거품일세. 시절인연이 도래하면 언젠가는 하산하겠지. 그럼 그때까지 안녕.

태백산중 도솔암에서

일타 스님이 경북 태백산 도솔암에서 상좌 자명 스님과 생식 수행으로 정진하실 때 율무를 보내드린 적이 있다. 율무를 받으시고 답으로 보내신 서신이다. 몇 줄 안 되는 서신에서 친정아버지 같은 마음을 느꼈다. 평소 늘 그랬지만 염려해 주시고 살펴주시는 마음이 내겐 늘 '아버지' 였다. 이 서신을 받고 하루 종일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난다.

일타 스님은 평소에 도솔암을 고향처럼 그리며 언제가 한 번은 그곳에 머물고 싶어 하셨다. 마침내 그곳에서 수행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도 한 번 가보고 싶어졌다. 나는 연꽃모임 도반들과 도솔암에 가기로 했다. 나는 떠나기 전 날 밤늦게까지 일타 스님께 드릴 김치와 일행 28명의 도시락을 준비했다.

도솔암은 쉬운 나들이가 아니었다. 얼마나 먼 길인지도 생각해보지 않고 무작정 떠난 길이었다. 산 밑에서 일타 스님과 상좌스님을 만나 걷기 시작했는데 길은 거친 바위와 자갈뿐인 힘든 길이었다. 날은 어두워졌고 우리는 일타 스님이 가지고 계신 작은 손전등 하나에 의지해 산행을 이어갔다. 커다란 김치통을 들고 낑낑거리는 내 모습을 보신 스님이 김치통을 스님 걸망에 옮겨지셨다. 스님과 우리 일행은 새벽 2시가 다 되어서 도솔암에 도착했다. 정말 힘든 길이었다. 갑자기 하늘이 뻥 뚫리고 환한 달이 나왔다. 도솔암이었다. 법당과 작은 방 하나가 전부였다. 모두 앉아있기에도 좁았다. 우리는 각자 여기저기 구석구석에 자리를 잡고 밤을 보냈다. 하지만 어려운 길 끝에는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다. 지금도 그때 일은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아있다.

그때 일이 더욱 깊은 추억으로 남아있는 것은 또 하나의 잊을 수 없는 일 때문이다. 나와 도반들은 다음날 하산때 스님들이 생식수행 중이라는 것을 알았다. 밀가루와 솔잎 등 생식만 하신다는 것이었다. 힘들게 지고 올라간 김치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런 김치를 힘들게 지고 올라가신 스님을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나 마음이 짠하다. 나는 도솔암에서 돌아온 후 율무를 보내드렸고, 율무를 받아보신 스님도 아마 그날을 생각하시며 서신을 보내신 듯하다.



1968년 범어사 보살계 수지. 일타 스님(중앙)과 대원성보살(우측).

BTN 붓다회

dreaminus 아름다운동행

『코로나19』
다함께 이겨냅시다!



dreaminus 아름다운동행 · BTN 붓다회 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공동으로 성금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우리 이웃이 코로나19를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827-01-0332-638 불교텔레비전(주)
후원문의 1855-0108 / www.btn.co.kr

BTN 붓다회 동참문의 1855-0108 | olleh 233번 Btv 30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케이블문의:02)3270-3300